대학원생 세미나 14.02.18

리딩: Brian C. Schmidt, The political discourse of anarchy: a disciplinary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NY Press, 1998. (발제: 최인호)

송지예: 저자의 비판지점은 기존의 학술사 정리에서 리오타르가 말한 대서사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음. 외부적인 IR에서의 사건들이 학술사에 영향을 미쳤으나 결정적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임.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이 anarchy가 기존 문헌들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1800년대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엄밀하게 학문을 세우려는 시도는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

이규원: 국제체제가 이런 식으로 간다. 동아시아 이론, 위계의 관념이 나옴. 국가주권의 관념과 anarchy가 연결. 담론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 국가가 정당한 개념이 아님. 어떤 이론이 더 설득력 있게 제창될 수 있는가?

최인호: 강대국 정치랑 구분되어 있음. 약소국이랑.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hierarchy의 구성인데 담론적 power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분석?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위계론? 19세기부터 함. 우리도 담론을 구성해서 갈 수 있나?

송지예: 분석수준으로서 anarchy가 유용한가? 담론수준에서 논의가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의 문제. Anarchy의 문제는 IR이 국제법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고, 일반적 인식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국내정치/국제정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anarchy로 국제정치를 보려고 했음.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지 않고 anarchy를 분석수준으로 잡는다면 모호성이 있음. 국가론은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anarchy는 국제관계가 설정되는 베스트팔렌 이후만 IR로 봐야하는지. 1800년대부터 봐야 하는지? Anarchy를 분석수준으로 삼을 때의 문제?

최인호: 이 사람은 미국 IR분석이니까 anarchy를 잡은 것을 판단할 수 없을 듯. 우리가 political discourse of something?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한다면? 양계초, 윤치호. 담론 네트워크는 있었음. 휘튼, 마틴 등.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면 sovereignty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갈까?

보면 19세기는 초보적인 논의임.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국가론에 종속되어 있었음. 19세기에 당했지만 학술사적으로 국제정치라는 것이 심각하게 discipline으로 다뤄야겠다고 본 것은 19세기부터임. Hague conference봐도 그러함.

송지예: 국제법이 어떻게 국가간의 분쟁이나 휴전조약을 어떻게 맺나? 19세기는 외국을 상대할 것인지의 문제?

최인호: 우리는 척화론? 여러 approach가 있음. 개념사?

용채영: 저자는 Critical internal discursive History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계보학적으로 쓰나? 담론분석, 개념사, 지성사? 무슨 방법론이 적절할지?

최인호: 저자의 방법론은 맥락 oriented되지 않고 담론을 internal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political action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개념사에서 가장 정치적 실천성을 잘 드러내주는 분석틀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재구성을 위해 그 뿌리를 캐보겠다고 하면 방법론 공부 해야 할 듯. 개념사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현실을 표현하는 언어체계. 우리는 발굴해야 할 듯.

송지예: 현실과 관념 사이의 문제를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문제. 이 사람은 관념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이 사람의 신념인데, 다른 학자들의 경우. Realism 대 Liberalism이라고 보면 당시 시기의 사건이 중요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현실이 있고 현실이 관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사람은 관념 따로 있고, 현실 따로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 안에서 논의 전개. 학자들마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님. 하 쌤의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이 관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듯. 시기별 이론이 왜 현실주의, 자유주의, 실증주의가 나온 것. 시대 맥락 안에서 설명하고자 함. 개인사도 중시.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사람과의 입장과 다름. 김영민 선생님이 이런 식의 사상사를 함. 당시 역사 사건의 이해도 있지만 그 맥락에서 벗어나서 사상적 흐름이 따로 있다고 봄. 이 사람이 취하는 입장이 관념에 대한 부분이 큰 듯.

최인호: 우리는 approach가 total임. 비중을 따져야 함.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자는 번역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조선에도 주권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비슷한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번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인지 감이 없다. 우리는 사실 담론분석을 한다고 하면 내생적으로는 주권에 대응하는 개념이 없는데 수입된 것임. 수입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님. 합쳐지면서 19세기의 담론이 확장된 것임. 문제는 중국 IR이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 서구개념으로 잡히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본다. 중국이 뜨고 체계를 잡아감. 새로운 개념을 뿌리는데 주권과는 comfortable하지 않다는 인식. 만약에 우리 식으로 동아시아 에서의 담론 전개관념을 본다면? 서구개념만으로는 안 됨. 그 필요성은 hierarchy등. 언어로 포착 못하는 점도 있고.

송지예: 아나키의 개념?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연속. 이 논쟁을 갖고 연속과 단절이 있다고 봄. 우리의 처지에서는 아나키의 문제가 언급이 안 되었다면? 이 사람 식으로 아나키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 어려움. Hierarchy도 아님. 서구 국제질서에 많이 포함됨. 이 사람처럼 하나의 아나키에 대한 담론. ~에 대한 담론으로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를 본다고 했을 때 중심개념이 뭐가 될지?

사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현실정치가가 아니라 IR의 학자. 우리가 Carr를 평가할 때도 그러한 것처럼 사상적, 학술적으로 평가받는 인물. 그런 사람들의 논의 흐름이 누가있을지? 19세기말 - 20세기 초. 식민지 시기 이후?

최인호: 지성사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음. Context와 text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끝.

용채영: IR의 대논쟁을 보면 사실상 이전의 논쟁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한편으로 공격대상을 잘 잡아야겠다. 기존의 이론 논쟁사 서술에서는 현대 이론이나 현실주의. ~만 있었다라고 보는 식인데 저자는 The League of Nations의 실패를 이상주의의 몰락, 현실주의의 승리라고 단순히 서술되었던 것을 비판, 국제연맹을 둘러싼 담론경쟁도 결국 이전의 국제조직에 대한 넓은 범위의 담론 중의 하나였으며, 전전/전간기의 담론과의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논의. 카아, 모겐소의 핵심 논의는 국내, 국제 차원에서의 power politics에 대한 강조 등. 하지만 학계의 논쟁 사를 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시기로 설정하여 잡았고..미국 국제정치학계 논쟁에만 주로 초점.